
제3회서울특별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1957년12월2일(단기4290년)(월) 오전11시5분

의사일정

1. 제17회임시회제6차회의록통과
 2. 보고사항
 3. 단기4291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에수반한시장시정연설
-

부의된안건

1. 제17회임시회제6차회의록통과 1
 2. 보고사항 2
 3. 단기4291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에수반한시장시정연설 3
-

(11시 05분 개회)

○의장 박명준; 오늘 출석의원 21인으로서 제3회정기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제17회제6차회의록낭독하겠습니다.

부의된안건

1. 제17회임시회제6차회의록통과

(간사장회의록낭독)

회의록낭독에 별착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회의록은 이로써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의원은 이행득의원 신종수의원
으로 지명합니다.

그다음 보고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 보고사항

○간사장 신용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이 11월21일자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부탁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준; 그외에 보고사항 있습니까?

(「의장」하는이 있음)

이갑수의원

○이갑수 의원; 이것은 집행부에다 얘기를 해도 간단한 문제입니다마는 좀 성의를 내주십사하는 의도하에서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은행앞에 인도포장에 망홀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위에 사람이 오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저의 집에 찾아왔어요.

왔길래 내가 서울시 건설국장도 아닌데 건설국장에게 시청으로 가지지 내한테 왔습니까 했드니 이것 여러분이 다 고쳐준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청 각구청에 4천명 직원이 계신데 언제 없어졌느냐 하니 일주일전에 없어졌다 그말이에요.

제일 복잡한 그거리이고해서 눈감고 가지않으면 안될 그런 곳이기때문에 하루에도 부상자가 수십명씩 속출하는것같으니 건설국장님은 곧 이것을 관계직원에게 하명하셔서 즉시 고치도록해 주시고 아무리해도 첩관으로 하면 연달아 가져가니 찾는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가져가지않도록 돌이나 세멘을 하지않으면 큰일 났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명준; 또 보고사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느이 있음)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로써 끝났습니다.

다음은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수반한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3. 단기4291년도시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수반한시장시정연설

○시장 고재봉; 오늘 단기4291년도 일반회계와 각특별회계세입세출총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160만시민을 대표하신 시의원 여러분앞에 시정 전반에 걸쳐 이사람이 시정의 대강을 말씀드리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저 하는것은 우리서울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기탄없는 건의와 특별하신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우리특별시의 행정의 날로 발전을 거듭하여 앞으로 국제문화도시로서의 수도 서울의 면모에 한거름 다가스 감을 가질수있게 되었음은 여러분과 더부러 동경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특별시는 대한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산업등 各部面의 중심지이여서 제반양상의 척도가 되는 우리나라의 심장부이므로 우방제국의 수도와 비할수있는 국제문화도시로 항상 발전시켜야 할것이며 이러한 수도건설의 대사업을 하루 속히 완수하기위하여는 시행정의 총기능과 전력량을 이에 집결시켜야 함에 비추어 신년도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대방침아래서 시민경제력과 아울러 수도 재건에 주안을두고 이를 강력히 실천할수있는 종합적 설계서와 구체적 지방서가 되도록 노력

을 하여보았습니다.

그러나 광범한 각분야에 걸친 제반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함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부담을 국한된 재원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뿐 아니라 년내의 시재정형편은 수도재건부흥사업수행과 이에따르는 시수입이 병행되지못한데 기인하는 재정위기에 봉착하고있는 사정에 노여있어 부득이 신년도에 있어서는 특히 일반회계에 있어서 시재정의 재건을 위한 긴축정책을 취한 까닭에 현년도에 비하여 예산의 규모를 총예산액의 60%선으로 압축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도 경중과 완급을 엄격히 재검토한후에 집행하는등 재정재건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전술의 방침에 차이 없이 총예산의 80%선으로 축감하였으나 특히 수도사업에 있어서는 년내의 확장사업과 주로 수도관개량에 거액을 투입하였고 택지조성사업에는 거장한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정책하에 편성된 신년도예산안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부분별로 몇가지 개요만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 내무행정에 대하여

첫째로 내무행정에 있어서는 庶政을 쇄신해야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이에 기반이 되는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신상필벌과 적재적소주의를 엄정히 실행하고 공무원의 교양훈련을 더 철저히 실시하여 질적향상을 도모코저 교양지의 배본과 훈련시설강화에 특단 유의하겠습니다.

둘째로 동행정에 있어서 이를 강화하는 기정방침에는 변동이 있을수없는것이나 시재정의 현하 실정으로서는 획기적강화는 도저히 기대할수 없으므로 爲先 동행정비의 대종인 동세수입부족을 일반시수입으로 보충하여 동정운영상 지장이 없도록하고 특히 동사무소확보를 위하여 건물의 신축과 아울

러 사유재산의 취득은 물론 불하된 귀속재산의 대금청산을 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째로 공보행정은 민주행정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바로서 당국의 실정을 時時로 주지케하여 「시민의시」로서의 중책을 다하도록 선전사업에 치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으로 활용가치가 저하되고 따라서 기대했던바 효과를 거두지못하고있는 「서울공보」의 발간은 이를 중지하고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선전과 새로운 행정선전시책을 기획하는 一便 시민위안을 위한 제반기회를 많이 가질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반설치한 시립 교향악단은 음악예술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년차적인 강화책의 일부를 실현하려고 하였습니다.

넷째로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축재정정책하에 편성된 예산의집행은 수지균형을 확보하는것을 철칙으로 삼겠습니다.

주지하신바와 여히 재정의 뒤바침없이 행정실적을 기대할 수는 없는것이므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견지하는 방책으로 지출재원과 그확보여부를 밝혀서 사업비지출을 인정하는 원칙하에 월별집행계획계획을 수립하여 중점집행의 철칙을 고수하고자 하는바입니다.

2. 재정행정에대하여

시세입의대중은 시세수입인데 이것이 일반회계 총세입액의 66%를 점하고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부담을 최소한으로하고 최대한의 행정업적을 거양토록하는것이 이상이기는 하지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의다 그러하듯이 우리서울 특별시의 실정도 여상의 이상을 실현할수없는 불운한 환경에 노여있으므로 신

년도에 있어서는 시세를 법정세율의 한도액까지 부과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으므로 이점에 대하여는 깊이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과에 공정을 기함으로써 100%의 징수를 완수하기 위하여 시세과징양면에서 신중하고도 적절한 시책이 강구실행되어 세정의 일대쇄신을 기해야 한다는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용료 수수료의 수입이 항상 부진한 상태에 노여있음을 특히 고려하여 월별수입예정액을 책정하여 책임있게 수입확보를 기하도록하였습니다.

경비절약에 있어서는 積小成大의 견지에서 일개사무용품일지라도 절용주의로서 극력 이를 억제하고 일반용품이나 집기 등의 신규구입도 원칙적으로 억제하여 기존품의 수리재생으로 그활용의 도를 높이기로하는 一方 특히 신년도에 있어서는 차량을 일부 정비하기로 하여 화물자동차 50여대를 처분함으로서 세입의 일조를 삼고 아울러 거액의 유지비를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분하려는 자동차중에서 일부를 뼈-쓰로 개조하여 원거리거주공무원의 통근에 利便을주고 또 ○반행사에도 이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3. 산업행정에대하여

중소상공업을 지도육성하여 우량국산품의 증산을 촉진함은 산업행정의 주요목표가 되는것이며 이것이 시민 경제부흥에 기여가 될뿐만아니라 나아가서는 국가자립 경제확립에도 큰 의의를 갖는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하사정은 시독자적인 육성방법을 발견할 수 없는것이므로 중앙당국에 활발한 융자정책에 의하여 중소

기업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책등을 진언하여 서울의 산업발전에 일조가 되도록 할것입니다. 임업행정면으로는 주로 사방사업비와 입산금지를 계속실시하여 치산치수 산림녹화 국책에 호응할것이며 축산관계에 있어서는 현년도에 이어 가축시장도장이전을 실현하여 위생적식육공급에 기여할것이며 일반다수시민의 집산지인 공설시장의 복구를 위한 수리와 시장내도로의 포장을 실시하여 시민의 이편을 기하게함과 동시에 청과시장복구도 현년도 일부공사와 더불어 완성할 계획입니다.

농업행정면에 있어서는 肥料斡旋供給에 적기를 失하지않도록 유의할것이며 농업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하여 농업교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柴糧행정으로서 양곡반입을 촉진시켜 현년도에 거양한 好成绩維持할것이며 곡가조절에 대한 정부시책을 적극실천하고 시탄문제에 대하여는 90년도사업의 경험을 토대로하여 일절 더 적응한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조치를 보류하였습니다.

4. 보건사회행정에 대하여

보건사회행정은 시민생활에 가장 긴절한 복지사업과 구호사업을 담당한 행정입니다.

위선 사회사업부면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의무탁한 고아 또는 부랑아의 구호기관인 중앙보육원의 수용인원을 700명으로 증가시켜 아동보호소로 개칭하여 이전개소키로 하였으며 현년도에 개설한 서울 소녀관에 부속授産場을 신설하고 부녀사업관을 개설하여 불우여성의 직업보도와 여성보호에 유의할것이며 노동자합숙소 직업소개소 직영후생시설등 사회정책적 사업소를 계속 유지할것입니다.

다음 보건행정면에 있어서는 보건비예산이 전예산의 15%

를 점하고있는것으로만 보아도 시당국이 뜻하고 있는바를 가히 아실것입니다만 6개소의 시립병원과 4개소의 보건소유지비는 거액에 달한 까닭에 시설확장을 주저하게 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오나 부족한 재원을 할애하여 의사의 대우를 개선책을 강구하였으며 상수도시설이없는 주변지구주민의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공동정호100개소를 신설케하는 一便 蔬菜洗場의 일부복구를 기하며 위생적야채공급을 도모하였읍니다.

특히 말씀드리고저 하는바는 미아리 공동묘지는 주변에 인가가 밀집하게되고 〇葬의 여지가 없게되어 도시미관상 또는 위생상 재고를 요하게 되었음으로 이를 이장한후 택지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분양하여 주택난에 대처키로 한것입니다.

一便 주택건설에 있어서는 시채을 획득하여 시당주택200호를 건축키로 하였으며 현년도에 계속하여 시민병원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마약중독자 치료소의 개선도 기도하였읍니다.

5. 건설행정에대하여

시행정의 중점이 건설부문에 있음은 예산면에 나타난 비중으로보아 능히 이해하실줄 믿읍니다.

중앙간선도로에 대하여는 국고보조에 의존할수밖에 없는 형편이므로 보조액의 결정을 기다려 조처할것이며 幽側도로 하수도 교량의 개수시설에 중점을 두고있음은 90년도방침과 다름이 없읍니다.

공사의 적기시행이 여의치못한데대한 일부논의도 불무하였으나 자금이 수반되지않는데 주요한 원인이 있었으므로 건축재정으로 건전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여상의 폐단은 점차 시정될것으로 믿어지는 바입니다.

瀝靑공사이전문제는 신년도에 다시 계획하였으며 계속사업

으로 우남회관 서울운동장확장공사등을 실시코져 합니다.

상수도시설의 7만둔증산계획은 국고보조를 대상으로 계속 수행할것이며 수도관설비개량에 각별 치중하여 급수의 혁신을 기하고 기타 양수기 급수전도 대폭증설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조성사업은 일층 활발히 실시될 것으로 믿는바이며 운수사업청은 기간 적자운영을 면치못했으나 신년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약간의 전입으로 구채를 정리하여 흑자경리를 지향하도록 노력해보고저 하는바입니다.

1. 경찰소관행정에 대하여

예산안에 관계되는 경찰국소관으로 위선 소방사업을 말씀드리자면 이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시책이므로 사업의 재원인 소방세율을 인상하여 사업확충을 기하였으며 다음에 청소사업은 시민의 환경위생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사업임에鑑하여 청소차의 증배를 기하고 공중변소관리의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는 경비부담을 위하여 오물수거수수료의 인상을 계획하였음은 부득이한 조처가 아닐수없습니다.

이상으로써 단기4291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시행정의 대강을 말씀드렸으니 현찰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4290년12월1일

서울특별시장 고 재 봉

(사회교대)

○부의장 이중구; 장의순의원 말씀해주세요.

○장의순 의원; 의사진행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에대한 연설을 잘듣고 또 91년도 예편성에 어디에 중점을 두었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전번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번 시정연설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자는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시정연설과 또 예산면을 검토해서 정책질의를 내일부터 할예산인데 어떻습니까. 일부에서는 모래하자 그런말씀을 하는데

(「내일 합시다」하느이 있음)

그러면 내일 정책질의를 각분과에서 분과에서 한사람씩 하고 또 보조질의로서 특히 생각나는분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안건도 없고해서 이로서 산회하는것이 어떨까 하고 나왔읍니다.

○부의장 이중구;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강을순 의원; 이제 논의한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약간 보충을 할까합니다.

91년도 예산을 제출함에 있어서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잘들었습니다.

특히 유감히도 교육감이 여기나와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예산자체가 법정기일에 나오지않었다는 점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 올시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자체는 정책질의를 하는데 지극히 곤란한 위치에 봉착했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해서 교육감께서는 예산에 수반되여서 교육행정을 연설못한다고 치드라도 명일 교육행정에대한 연설이 예산에 추후에 나온다고 하드라도 교육감께서는 내일 반듯이 교육행정연설을 마치도록 하는것이 가장 좋을것같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교육감에게 명일 교육행정연설을 들은후 전반에 걸친 질의를 하는것이 좋지않을까해서 동의하는 그부분에 첨가하

는바입니다.

(「좋습니다」하느이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느이 있음)

○부의장 이중구; 그러면 오늘은 이결로 안건도 없고 내일
정책질의의 준비관계로 이결로 산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느이 있음)

그러면 이결로 산회합니다.

(11시 37분 산회)
